
	<h1>보도자료</h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의: 융합서비스센터 이석형 센터장(042-869-1779) / 박정훈 팀장(1794)		
배포번호 : 2021-41 배포일자 : 2021.11.15.(월)	매수 : 보도자료 3매 (첨부자료 포함)	배포처 : 대외협력실

KISTI-대전시, 데이터·AI 기반 지능형도시 구축 협력

-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가상공간 동시 MOU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 이하 KISTI)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1월 15일 KISTI 대전본원에서 “데이터·AI 기반 지능형도시 대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능형 도시 대전 구축을 위한 데이터·AI·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반의 도전 문제 발굴 및 해결 협력 ▲마이데이터의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및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협력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협력 ▲도시·공공데이터의 발굴과 유통 활성화 등 데이터 구축 협력 ▲양 기관 협력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표준 프로세스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특히 본 협약식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래 ICT 기술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간을 개설하여 KISTI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협약식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였다.

KISTI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우선 대전시와 공동출자를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 대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작년부턴 진행되었던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대전시 교통복지분야 서비스를 변화시킬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대전시의 공공데이터, KISTI의 과학기술 인프라, 통신정보 등 민간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융합하고, 마이데이터·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 신개념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통·보건·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 해결 및 지능형 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은 “두 기관은 대전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이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STI 김재수 원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인 KISTI가 대전의 지능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라 밝히며, “KISTI가 보유한 데이터·AI 기반의 기술적 역량을 발휘해 지능형 도시 대전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KISTI-대전광역시 업무협약식 사진자료



KISTI와 대전광역시 관계자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KISTI 김재수 원장과(왼쪽)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